

르뽀기사의 변천과 기능

김동주

강원일보 논설주간

단순탐방에서 고발성 기사로

현대인은 뉴스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 아침 6시에 시작되는 TV 방영의 첫 프로그 뉴스보도인 것에서 보는 것처럼 눈을 뜨기 무섭게 뉴스에 접한다. 대부분의 소시민은 그날의 첫 일과로 조간신문을 찾는다. 6공화국 출범 이후 신문을 비롯한 각종 출판물들이 가히 범람상태를 이루고 각 신문이 경쟁적으로 증면을 시도할 뿐 아니라 일요일에도 발간하게 됨에 따라 사람들은 뉴스에 둘러 싸여 산다 해도 지나침이 없다. 사람들의 뉴스에 대한 요구는 끝이 없다. 놀라운 일이나 충격적인 사건에서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 각 영역의 모든 문제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 르뽀기사는 다양한 사회현상의 평면적인 보도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언론의 기능을 맡고 있다.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기자가 직접 사건현장에 뛰어들어 이해당사자 또는 보도대상을 폭넓게 접촉하여 그 배경을 파헤치고 인과관계와 파급효과, 장래의 전망까지 진단할 심층보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르뽀기사라 할 수 있다. 르뽀기사는 한국신문의 초창기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해방전의 르뽀기사는 고작해야 농촌실태를 답사하는 단순탐방의 영역을 별로 벗어나지 못했다. 해방 후 1960년대 초까지의 르뽀기사도 사회 각계의 쟁점에 좀더 깊이 접근해보는 소극적인 시도에 그친 느낌이 없지 않다. 신문이나 잡지에서 르뽀기사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196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 아닌가한다. 한국사회의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르뽀기사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이다. 「르뽀기사의 변천과 기능」이라는 편집자의 주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해방편의 신문과 잡지, 해방후의 각 관문, 최소한 1960년대 이후의 신문과 잡지를 두루 섭렵하고 통계를 뽑아가며 기술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한정된 일정과 예산으로는 그러한 시도를 감히 무릅쓸 수 없어 1960년대 이전의 출판물을 개관하는데 그치고 1965년 이후의 「신동아」에 게재된 르뽀 기사를 중심으로 그 변천과 기능을 살펴보았다. 신문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앞서 지적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신동아」지의 르뽀 기사를 살펴 보는 것만으로도 그 흐름과 변천을 파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본다. 1960년대의 르뽀기사는 보도대상을 단순 탐방하는 범주를 크게 넘어서지 못했다.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조명하고 깊고 폭 넓게 사안을 파헤치기보다 독자의 관심대상을 직접 탐방하여 다소 상세하게 보도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같은 특징은 「신동아」지의 르뽀 기사 제목만 일별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960년대의 대표적인 르뽀 기사를 일별하면 1965년 10월호의 「계룡산」, 1965년 11월호의 「청운양로원」을 비롯해서 1965년 12월호의 「서산개척단」, 1966년 1월호의 「대성동 자유의 마을」, 1966년 2월호 「제주도의 특산물들」, 1966년 3월호 「오산소년촌」, 1966년 4월호 「중봉리 고산마을」, 1966년 6월호 「울릉도」, 1967년 4월호 「종합병원」, 1968년 3월호 「폐광촌」 등으로 되어있다. 탐방기사의 대상 자체가 사회고발성이나 쟁점을 별로

담고 있지 않다. 이때의 르뽀기사가 평면보도의 범주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사의 양에서도 드러난다 「종합병원」이 10면에 이를 뿐 나머지는 5면에서 7면에 머무르고 있다 1970년대 이후의 르뽀기사가 최소 10면에서 30여면에 이르고 있는 것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1960년대의 르뽀기사와 1970년대 이후의 그것은 기사량만으로 따질 때 대충 1대 3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르뽀기사의 변천은 기사의 양보다 취재의 대상을 통해 좀더 확연히 드러난다. 첫째 취재대상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해외탐방기사가 1970년대 벽두부터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경제계, 산업현장의 분규, 민중문화의 대두, 재벌, 한미간의 갈등, 종교문제 등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신동아」지의 르뽀기사를 제목만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1971년 4월호 「민원」, 1971년 5월호 「호지명루트」, 1971년 7월호 「보건소」, 1971년 10월호 「광주대단지」, 1972년 6월호 「공해지대」, 1972년 7월호 「금융가」, 1984년 4월호 「택시운전기사 그 방치된 삶」, 1984년 9월호 「암달러상 그 계보와 생태」, 1984년 10월호 「80년대의 민중문화 예술운동」, 1985년 3월호 「독립기념관이 어떻게 돼가나」, 1985년 6월호 「청계피복 노동조합」, 1985년 8월호 「재벌기업의 초비상 감량작전」, 1985년 12월호 「실업대책이 없다」, 1986년 2월호 「재벌들의 백화점 전쟁」, 1986년 8월호 「대학생<농활>과 농촌현실」, 1987년 4월호 「가진 자의 과소비현장」, 1987년 5월호 「상계동 철거민」, 1987년 11월호 「사립대학분규의 현장」 등이 있고, 월간조선의 경우를 일별하여 보면, 1984년 9월호의 「조계종」을 비롯하여 1985년 1월호 「교원공제회를 벗긴다」, 1985년 7월호 「미국문화원점거 72시간」, 1985년 9월호 「부관훼리」, 1985년 11월호 「국학의 본산인가 국민윤리의 작은집인가」, 1986년 1월호 「병정하의 실업지대」가 있고, 이밖에 월간중앙 1974년 11월호의 「어느 송년 농가의 적막」 등이 있다.

다양화·본격화·심층분석적 추세

앞서 지적한 것처럼 1960년대의 르뽀기사는 단순한 탐방기사의 범주를 면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평면적인 서술에 머물고 있다. 「대성동 자유의 마을」, 「제주도의 특산물들」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적 관심을 모은 사건이나 쟁점에 대한 입체적 취재가 아닌, 특정 사항에 대한 상세한 소개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르뽀기사는 문제의식을 앞세우고 있다 「종합병원」, 「폐광촌」, 「민원」 같은 르뽀기사를 살펴보면 취재대상에 대한 심층보도와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의 분석이 가해지고 있고 비판적 시각이 저변에 흐르고 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르뽀기사는 면모를 크게 달리하고 있다. 먼저 취재대상의 폭이 넓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리한 사회성을 띤 그때그때의 쟁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민중문화예술운동에 대한 진단이나 택시운전기사와 그 방치된 삶에 대한 고발성 짙은 보도에서 그러한 경향을 포착할 수 있다. 경제규모의 팽창과 함께 경제문제, 재벌의 생태, 사회의 과소비 현상같은 것이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에서 르뽀기사가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야 사회적 모순과 갈등에 대한 비판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르뽀기사가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매놓을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러나 르뽀기사라는 이름 아래 시도된 일련의 기획물이 역사적 전환점에서 빚어진 민감하고 심각한 문제에 대해 메스를

대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KBS·MBC 양 방송국의 용기 있는 시도가 그러한 예에 속한다. 방송국의 이같은 기획물을 르뽀기사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적어도 신문과 잡지는 그 정도의 본격적 시도를 아직은 역사적 과제로 남겨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동아」, 「월간조선」에서 광주문제를 비교적 생동감 있게 다룬 바 있으나 역사의 아픔에 대한 본격적인 기획물로서는 많은 여백을 남겨 두고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짚고 넘어갈 것은, 언론매체의 주역임을 자처해 마지 않는 신문이 아직 방송이나 월간지만한 정면분석을 시도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신문이 갖고 있는 영향력의 지대함에서 오는 파급현상에 대한 배려, 객관적 서술의, 어려움 같은 것에서 비롯된 결과일지 모르나 아직은 한국의 르뽀기사가 경제나 사회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보도에 그치고 있을 뿐 정치현장의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르뽀기사는 정치적 쟁점에 관한 한 한국기자의 국내활동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를 느낀다. 일본의 록히드 스캔들, 필리핀의 마르코스 퇴진을 들러 쓴 국내기자의 해외취재, 외국기자의 국내취재 같은 것은 아직 두드러진 것이 없다 마르코스의 실각은 일본 TBS의 한 기자가 미국내에 은닉된 재산을 심도 있게 파헤침으로써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0 년도를 전후하여 한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외국언론이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르뽀기사의 이름 아래 한국의 격동기가 다루어진 외국의 기획물이 국내에 소개된 것은 없다. 이른바 5공 비리와 관련하여 국내언론이 해외에서 취재활동을 벌인 일 또한 알려진 것이 없다.

르뽀기사와 심층보도

르뽀기사와 심층보도가 동의어는 아니다. 그러나 르뽀기사는 어쩔 수 없이 심층보도적 성격을 띠게 된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만을 아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 독자와 시청자들은 그 사건이 왜 일어났으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고자 한다 「신동아」 1988년 3월호에서 다룬 르뽀기사 「(대한민국 교육특구) 서울 8학군」에서 보는 것처럼 특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폭넓은 취재와 깊이 있는 분석을 기대하기도 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기사는 스트레이트뉴스와 꼭 동시에 보도할 만큼 급박한 것이 아닐 때가 많다. 사실보도는 초보 내지는 보충취재만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이나 사실이 중대하고 그 배경 등에 대해서 취재가 가능하면 기자는 분석과 해설의 영역인 심층취재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신문을 흔히 사회의 목탁이라 말하거니와, 이 목탁이라는 말은 단순한 사실의 보도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신문(TV 또는 라디오, 잡지)의 기능을 함축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르뽀기사가 심층취재와 같은 말은 아니지만 르뽀기사가 호소력을 가지려면 어쩔 수 없이 심층보도의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르뽀기사는 사실상 심층보도를 의미할 때도 있다. 심층보도로 사람들은 사건이 어떻게 작용하며 왜 그러한 결과가 야기되는가에 대해 알게 된다. 심층보도는 분석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사실보도를 넘어 판단과 추론의 주관적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기사 취재보도는 취재기술의 숙달과 더불어 주제를 분명히 해석하고 결론을 유도해 얼만한 기자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 한국에서 기획된 르뽀기사는 이른바

전문기자에 의한 본격취재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소속된 부서에 따라, 해당 출입처 기자가 르뽀기사의 현장에 파견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인데, 심층보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자의 양성과 '이들에 의한 취재활동이 기대된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TV의 대량보급이 활자매체에서의 르뽀기사 내지 심층보도의 필요성을 한결 절실한 것으로 하고 있음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최근 TV가 르뽀기사적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일과성의영상취재는 박진감 넘치는 현장조명의 효과는 있으나 깊이 있는 취재와 해설적 기능에 있어서는 활자매체를 따르지 못한다. 그러나 TV가 그 속보성이라는 무기를 들고 현장탐방에 뛰어들고 있는 이상 신문(잡지 등)은 르뽀기사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 브라운관을 통해 비춰지는 화상이 갖는 박진감은 활자에 의한 사실전달만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가 없다. 기사에 TV 보도 이상의 넓이와 깊이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기자의 눈과 귀와 발로써 모든 자료를 정확히 판단하여 재구성하는 전문적 지식과 두뇌가 필요하다. 물론 대소의 모든 사건에 이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킨 대사건의 보도에는 TV가 추종할 수 없는 신문이 강점을 살려가야 한다. 사건의 원인, 배경, 영향을 위시해서 모든 각도에서 기사를 쓸 것이 요청된다. 문제를 다각적·종합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구미나 일본에서는 활자매체, 특히 신문이 TV에 뉴스를 뺏기고 있지만 해설적 기능을 통해서 독자층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르뽀기사가 곧 해설기사는 아니나 해설적 기능을 함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필자가 신문에 몸을 담고 있어 르뽀기사의 전개양상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신문에 대해서만 근거하게 되지만, 신문의 선도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르뽀기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도성은 정치적 지도성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시민생활을 향상, 개선해나가기 위한 선도성이 보다 중요하다 신문의 선도성 발휘에 있어 가장 적합한 보도형태는 신문 캠페인이다. 어떤 의미에서 캠페인은 현대신문의 주역이다. 「물가문제」, 「교통전쟁」, 「청소년보호」, 「공해문제」, 「주택문제」, 「부동산투기」, 「과소비추방」 등 신문캠페인의 소재는 언제나 주변에 있다. 신문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캠페인으로 사회에 봉사해야 된다. 부연할 필요조차 없이 르뽀기사가 곧 신문캠페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르뽀기사의 시각과 방향설정의 여하에 따라 캠페인적 성격을 발휘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다. 이쯤에서 지방신문과 르뽀기사의 중요성을 서술할 필요를 느낀다. 심층보도나 르뽀기사의 중요성은 사회의 다양화, 다원화, 숨가쁜 변화와 발전의 템포에 비추어 모든 언론매체에 공통된 주요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방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자본이나 시설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앙지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중앙지가 추적 못할 지방문제의 캠페인, 생생한 현장탐방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신문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전국지가 미치지 못할 지역사회 구석구석을 소상히 비추어줄 필요가 있다. 지방, 특히 과소지대인 강원도 같은 곳에는 이렇다 할 사건이 별로 없다. 그러나 사양화 하는 광산촌, 외지인에 의해 침식되어가는 관광지의 토질, 농어촌의 황폐화, 정적지역 주민의 삶과 의식 등 신문이 재조명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할 현안은 얼마든지 있다. 말할 필요조차 없이 지방신문의 존재이유는 그 서비스의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핵이 되는 것,

특히 여론형성의 핵이 되는데 있다 지역문제를 지역주민의 시각에서 다루는 르뽀기사의 발굴과 확충을 통해 지방신문은 지방화시대의 선도역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르뽀기사의 실제

이쯤에서 그 동안 다루어진 르뽀기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훑어보고자 한다.

음성나환자의 정착현장을 답사한 「신동아」(1966년 12월호)는 나병은 완치될 수 있다는 통설에도 불구하고 양성(전염성)에서 음성(비전염성)으로의 전환을 의미할 뿐, 일생을 통해 너무나 깊고 뚜렷한 병의 흔적이 남은 그늘진 인생을 그리고 있다. 미감아의 교육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이 기사는 부각시키고 있다. 「신동아」(1967년 2월호)의 「유치원」은 일그러진 특수교육의 현황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유치원이 돈 있는 특수층, 부유층의 교육기관이라는 점과 함께 잡부금이 많이 들고 그 뒷바라지가 꽤 어렵다는 점 말고도 과연 유치원이 어린이를 보낼만한 곳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범죄와 사회의 함수론에 앵글을 맞춘 「신동아」(1974년 3월호)의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의 불만과 증오의 심리학, 어느 10대가 살인하기까지의 배경과 과정을 파헤치고 있다.

충격적인 것은 「칼만 있으면 돈이 생긴다」는 위험한 발상아래, 더러는 남이 강도하는 것 보고 이를 모방하는 10대의 위험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범죄양상의 변화와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언급함으로써 범죄예방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

1980년의 교육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교육특구> 서울 8학군」은 학군따라 강남으로 이동하는 서울의 병리를 진단하면서 학군따라 주택 값까지 흔들리는 한국적 상황을 묘파하고 있다. 아울러 갈수록 벌어지는 강·남북의 학력격차를 계수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이 교육 자체를 일그러지게 하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가려냄으로써 빛나간 교육평준화와 그 명암을 해부하고 있다. 「월간조선」(1985년 1월호)의 「저임금지대」는 5만원 미만의 저임도 있음을 일깨움으로써 독자에게 쉬이 가지지 않는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봉제공 10년의 일당이 3천 4백 30원임을 가려낸 이 르뽀기사는 몸이 아파도 결근 못하는 근로청소년, 한 방에 6명이 사는 구로동의 닭장집, 그러면서도 꿈을 버리지 않고 공부하는 「산업계 특별학급」의 모습을 독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충격 못지 않은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산업재해의 희생이 되어 말없이 쫓겨난 미성년 근로자의 애절한 모습은 아직도 이 나라에 인권의 소외지대가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체제의 모순까지를 적시한 이 기사는 인권옹호,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르뽀기사의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월간조선」(1989년 4월호)의 현장르뽀 「현대중공업의 노사분규」는 민주화과정에서의 필연적인 과정이라고도 할 노사분규의 현장에 독자를 몰고 가고 있다. 보기에 따라 노사분규일 수도 있고, 각도에 따라서는 정치투쟁적 성격마저 띠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분규에 대해 기자는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점을 도려내고 있다. 기자는 어설픈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현대중공업의 노사분규가 전환기의 한국이 부딪쳐 있는 가장 큰 사회적 쟁점의 하나임을 진단하고 있다.

「월간조선」(1989년 7월호)의 「화성 미공군 사격장 시위」는 미군기지 주변의 민감한 문제들을 추적하고 있다. 안보라는 절대명제 아래 30여년간 침묵을 지켜왔던 매항리 주민들이 마침내 「기지 이전」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일어난 경위를 그린 이 기사는

1980년대 이후 옛과 같지않게 된 한미 양 국민의 감정적 얼룩과 무관하지 않아 독자들의 길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격장의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 폭탄투하에 뺨긴 황금어장, 나쁜 조건 때문에 날로 낙후하는 마을의 심각함 등을 소상하게 그려냄으로써 이 시대에 풀어야 할 한미간의 한 현안을 실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신동아」(1986년 8월호)의 「건강진단에 몰리는 사랑들」은 건강관리에 집착하는 현대인의 생활단면을 다루고 있다. 이 시대의 한 유행병처럼 되어 있는 종합진단의 안내역할도 떠맡은 이 기사는 허술한 의료감시제도에 대한 고발을 잊지 않음으로써 르뽀기사의 본령을 살리고 있다. 이상 인용한 르뽀기사는 월간지의 르뽀기사 중 눈에 띄는 것을 대충 살펴본 것이다. 주마간산에나 비길 표피적인 개관에 지나지 않으나 르뽀기사의 성격과 기능이 어떠한 것인가를 짐작하는 데는 큰 아쉬움이 없다. 일상의 다망 속에서 잊혀진 인간 내지 인권소외시대, 이색시대, 변두리인생, 노동현장의 갈등과 쟁점,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들, 권위주의시대가 부산한 이 시대의 갈등을 비교적 극명하게 묘사함으로써 르뽀기사가 궁극적으로는 자유와 민주화를 추구하는 시민적 욕구에 부응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개개의 기사가 반드시 특정한 목적의식을 갖고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취재대상에 앵글을 맞추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과 다양화, 복합화에 따라 여러 갈래의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르뽀기사는 이 시대의 문제점을 호소력 있게 부각시킴으로써 사회정의의 실현, 인권신장, 사회체제의 모순을 바로 잡는 방향으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즉, 스트레이트 기사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언론의 기능을 재인식시키고 있다.

르뽀기사와 배경취재

앞서 지적한 것처럼 르뽀기사는 전문적 식견을 지닌 기자가 이에 임할 것이 기대된다. 또 기자는 많은 것을 알고 없다고 독자들은 생각한다 따라서 기자가 어떤 사실을 놓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것에 독자는 관대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사가 오진을 하고 판사가 오판을 범하는 것처럼 기자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의사와 변호사의 실수에 피해를 보내는 사람들도 기자의 무지에서 오는 과오만은 쉬이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자가 독자의 이같은 고정관념을 유감없이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각종 잡지, 신문의 지면증대는 기자들에게 더욱 무거운 짐을 내리고 있다. 기자는 오랜기간에 걸쳐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취재대상의 배경취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독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사는 발로 쓰는 것임은 흔히 인용되는 말이거니와, 르뽀기사야 말로 가히 무한대의 이해당사자를 접촉해야 하는 부당을 기자에게 안기어주고 있다. 문제는 기자를 대하는 취재대상은 저마다의 입장에서 호소하고 자료를, 그리고 의견을 개진한다는 데 있다. 자칫하면 기자가 선입관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 현장에 임하기 전에, 또 현장에 임한 후 문제의 배경취재에 탄전을 기해야 될 이유가 이에 있다. 영국 앤공주의 결혼식을 취재한 한 기자의 경험이 배경취재의 중요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미국 NBC 방송 「투데이 쇼」의 진행자인 바바라 월터스는 영국의 앤공주 결혼식 기사를 다룰 때 그 준비를 하느라고 런던의 호텔 방에서 며칠을 보내야 했다 특정한 자료를 평소에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밖에 나가지 않았고 어떤 초대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녀와

그녀의 조수는 밤낮으로 호텔방에 들어박혀 자료를 정리하고 방송할 것들을 기획했다고 회상한다. 「우리는 호텔 방바닥에 서류를 늘어 놓고 모든 참고자료를 담은 노트를 만들었다. 그래서 결혼식 당일에는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 고 했다. 그 노력의 대가는 TV시 청자들에게서 주어졌다. 월터스는 카메라에 비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적적 달 수 있었고, 결혼식 천만에 걸쳐 전문적이고 자세한 보도를 했다. 월터스는 그녀가 수집한 특정한 자료를 다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행원저 「취재보도의 실제」 PP. 97~98 인용)개괄적으로나마 「르뽀기사의 변천과 기능」을 살펴보았거니와, 르뽀기사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정의의 실현, 성숙한 시민사회의 형성에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 대구대학 법과

□ 저수: 「이산가족의 고통화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 「오늘과 내일」 (공저)

□ 현재 강원일보이사, 논설주간